전남도 예산 증액 '사활'

박창환 정무부지사, 내일까지 국회 찾아 의원 면담·지원 요청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초강력 레이저 시설 구축 등 설명회도

전남도가 2023년 정부 예산 확정 전에 현안사업에 대해 신규 예산 반영, 증액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구축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8일까지 이틀 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 윤재갑, 윤영덕 등 광주·전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개호·서동용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고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11월 말까지 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부터 이미 확보된 국비 8조2000억원에 더해 한 푼이라도 더 국회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및 미래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건의할 주요 핵심사업의 국고반영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

분야별로 대한민국 대표 전남 문화·관광사업은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2023년 55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2023년 29억원)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2023년 8억원) 등이다.

첨단 전략 및 에너지 산업으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2023년 5억원) ▲대불산단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2023년 32억원) ▲여수·광양산단의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5억원) 등이다. 농림·해양 산업으로는 ▲어선 건조 진흥단지 구축(2023년 5억원)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3억원)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2억원) ▲수출용 수산물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2023년 45억원) 등이다.

증액 건의할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1단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요청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2023년 6억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2023년 207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도 못 지키는게 나라냐" 광주 지역 11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 위탁기관 공모

내년 2월부터 5년간…14일 시청 사업 설명회 참석자만 신청 자격

광주시는 "시립정신병원, 시립 제1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의료 기관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보훈병원이다.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두 병원은 각각 248병상 257병상 규모로 위탁 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이다. 오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자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25일과 28일 시청 건강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돼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정신질환 관리의 지역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최근 2년간 아동학대 2000건
도시가스 보급률 55%…전국 15위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최근 2년 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보급률도 여전히 낮아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 간 하루 3건 이상 아동학대 발생=7일 전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2750건으로 집계됐다. 수치로면 보면 하루 3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250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1905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128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845건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순천에서 311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가장 많았고 광양(294건), 여수(279건), 목포(272건), 나주(173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목포(153건), 순천(133건), 광양(123건), 여수(107건), 나주(93건) 등의 순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190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364건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9월 말까지 모두 262건의 재학대 신고가 이뤄져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인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가 늘어난 면도 있지만 재학대 사례의 경우 보다 적극적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5번째 도시가스 보급률=전남도의회의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적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제주(11%), 강원(54%)에 이어 55%에 불과한 상태로 전국 평균(84%)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보급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2031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해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급률 1%를 올리른 데 14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유치 경쟁

전국 19곳 신청…17일 현장 실사·12월 후보지 선정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 산업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제안서를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가 산단 조성은 통상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 대선공약 반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5년마다 한번 주기로 돌아온다.

전국 19곳이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6~7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광주방문 등 권역별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산업 적정성, 수요확보 가능성, 지역성장 잠재력 등 산업 분야 배점 40점이며 부지개발 가능성, 사업추진 용이성, 정책적 타당성, 기업활동 편의성 등 입지 분야 60점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 빛그린 산단 인근 100만평에 미래자동차 전용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과 연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미래차 산단은 광주 경제의 48%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생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기간산업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는 기아,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2개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도시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보다 부품 기업 등이 적어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 집적화 사업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